

한자문화권 국가의 한자 표준 자형 선정 기준 고찰

金 永 玉*

<目 次>

I. 서론	III. 한자문화권 국가의 한자
II. 한자문화권 국가의 한자	표준 자형 선정 기준
표준 자형 비교	IV. 결론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한자문화권 각국의 한자 자형이 지니는 차이점의 원인에 대해 검토하고, 또 각국 한자 표준 자형 선정 기준에 대하여 고찰하여 그 특징과 의의를 살펴본 것이다.

중국은 1909년 이후 간체자 사용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한 이후, 1922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간체자’,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간체자’,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글자’, ‘사용 정도가 가장 높은 한자’ 등 현재 중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한자 자형을 한자의 표준 자형 선정 기준으로 정하였다.

대만은 ‘통용성’, ‘字源’, ‘간단한 구조’ 등을 한자 표준 자형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자원을 표준 자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홍콩은 ‘보편성’, ‘학술성’, ‘규율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중에서도 ‘보편성’이 가장 중요한 자형 선정의 기준이었다.

일본의 한자 표준 자형 선정 기준은 본래 『康熙字典』의 자형이었으나 현재는 점차 간략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 또 허용하는 자형을 명시하여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원 / angelok72@hanmail.net

한자 사용에 있어서 허용되는 범위를 밝혔고, 자형 표기의 구체적인 원칙을 세세하게 제시하였다.

한국은 2000년 이전까지는 주로 ‘빈도수’와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 자형’이 자형 선정의 기준이었고, 2000년 이후에는 『康熙字典』의 자형을 기본으로 하고 통용성도 고려하여 한자 자형을 선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자문화권 각국의 한자 표준 자형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한자 표준 자형을 선정하고 검토하는데에 일정 정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한자 자형 선정 기준, 통용성, 간략화, 『康熙字典』의 자형

I. 서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는 한자문화권 국가(한국, 중국, 대만, 홍콩, 일본)에서 문자 표기 정책이 전환되는 시기였다. 즉 이 시기에 한·중·일 각국에서는 한자 사용에 제한을 두거나 簡化字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¹⁾ 이로 인하여 그 이전에 사용하던 한자와 달리 새로운 한자 자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다. 이렇게 각국에서 정리한 한자의 표준 자형은 국가 차원에서 제시한 漢字字形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

1) 한국의 경우 고종 31년(1894년)에 반포된 高宗 勅諭을 기점으로 한자 사용과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상용 한자’가 제정되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당시의 표준 자형을 簡化字로 정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는데, 1909년에 제기된 보통교육에서 필획이 간단한 간화자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1919년 『漢字整理案』에서 2,600여자를 공시하였고, 이것은 이후 한자 사용의 제한을 위한 상용한자 선정의 바탕이 되었다.

본문에서는 漢字字形表를 중심으로 한자문화권 각국의 한자 표준 자형 선정 기준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이를 통해, 각국의 한자 표준 자형 선정의 배경과 원칙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한자 표준 자형을 선정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자문화권 각국에서 사용하는 한자를 상호 비교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한자의 字種 비교 연구, 자형의 同異 비교 연구 등이었다.³⁾ 이러한 선행 연구는 한자문화권 국가의 한자 사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특히 자형상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중국·일본의 한자 자형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배경에 대한 고찰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수용하면서, 특히 한자문화권 각국의 한자 자형이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 검토하고, 또 각국 한자 표준 자형 선정 기준에 대하여 고찰하여 그 특징과 의의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 이하 각국의 한자 표준 자형의 변천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한국 교육인적자원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백서』, 2000.; 대만 教育部 『國語文教育叢書』 및 대만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edu.tw>); 홍콩 港標中文網 (<http://input.foruto.com>); 일본 文化廳 「改定常用漢字表」 (<http://www.bunka.go.jp>); 중국의 「印刷通用漢字字形表」, 「現代漢語常用字表」, 「現代漢語通用字表」, 「通用規範漢字表(徵求意見稿)」.

3) 문수정, 「한·중·일 삼국의 상용한자 비교연구 : 중복양상과 자형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용혁, 「韓·中·日 生活基礎漢字의 字形 規範化를 위한 研究」, 경상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등 최근에는 한국의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와 중국·일본·대만의 한자 자형을 비교한 후, 갑골문 등 고문자학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한자 字源 기준을 가지고 한자 자형을 비교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金彦鍾, 「對漢字文化圈常用漢字字形规范化問題的一些題議」, 『第八屆 國際漢字研討會 論文集』, 中國 教育部 語言文字應用研究所, 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 2007.; 양원석,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字形과 字序에 대한 管見」, 『동양한문학 연구』 28, 동양한학회, 2009.; 양원석, 「한국의 漢字 字形 規範化 방안 試論」, 『Journal of Korean Culture』 17,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2011.)

II. 한자문화권 국가의 한자 표준 자형 비교

한자문화권 국가의 한자 자형 선정 기준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 자형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자의 자형에 자원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자형의 구조는 어떠한가, 필획의 모양은 어떠한가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비교를 진행해 보면, 각국의 한자 자형이 가지고 있는 상호간의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다.

다음은 각국의 한자 표준 자형 중 서로 차이를 보이는 한자 자형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1. 字形의 구조

다음은 한자문화권 국가의 한자 표준 자형 중 각국의 자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글자를 구성하는 部件의 구조에 따라 자형에서 차이를 보인다.

【 啓 】⁴⁾

中國	臺灣	홍콩	日本	韓國
戶 / 啟	啟	啟	啓	啓

한국과 일본에서는 ‘啓’ 형태로 제시하였고, 중국·대만·홍콩에서는 ‘啟’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중국·대만·홍콩에서는 ‘口’가 ‘戶’의 아래쪽에 위치한 좌우구조를 따른 것이고 한국과 일본의 자형은 ‘戶’

4) 이하 한자문화권 각국의 한자 표준 자형 비교에서 표제자는 한국의 자형을 기준으로 ‘【 】’ 안에 제시하겠다.

아래쪽에 ‘口’가 위치한 상하구조의 형태를 따른 것이다.

【裏】

中國	臺灣	홍콩	日本	韓國
里 / 裏	裡	裏裡	裏	裏

한국·일본·중국·홍콩에서는 ‘裏’ 형태로 제시하였고, 대만에서는 ‘裡’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한국·일본·중국·홍콩의 자형은 ‘衣’와 ‘里’의 상하구조인 ‘裏’를 따른 것이고, 대만의 자형은 ‘衣’와 ‘里’의 좌우구조인 ‘裡’의 형태를 따른 것이다.

2. 필획

다음은 한자문화권 국가의 한자 표준 자형 중 각국의 자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글자의 필획에 따라 자형에서 차이를 보인다.

【道】

中國	臺灣	홍콩	日本	韓國
道	道	道	道	道

한국에서는 ‘道’ 형태로 제시하였고, 중국·홍콩·일본에서는 ‘道’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대만에서는 ‘道’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辵이 왼쪽에 위치할 경우 辵, 중국·홍콩·일본에서는 辵, 대만에서는 辵의 형태를 따른 것이다.

【 緩 】

中國	臺灣	홍콩	日本	韓國
緩	緩	緩	緩	緩

한국과 일본에서는 ‘緩’과 ‘緩’ 형태로 제시하였고, 중국·대만·홍콩에서는 ‘緩’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중국·대만·홍콩에서는 糸가 글자의 왼쪽에 위치할 경우 ‘糸’ 형태를 따른 것이고, 한국과 일본의 자형은 ‘糸’ 형태를 따른 것이다. 또한 중국·대만·홍콩·일본에서는 爪가 글자의 윗부분에 위치할 경우 ‘爪’ 형태를 따른 것이고, 한국의 자형은 ‘爪’ 형태를 따른 것이다.

【 羽 】

中國	臺灣	홍콩	日本	韓國
羽	羽	羽	羽	羽

한국에서는 ‘羽’ 형태로 제시하였고, 중국·대만·홍콩·일본에서는 ‘羽’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중국·대만·홍콩·일본에서는 羽에서 ‘丿’ 안쪽 필획에서 ‘丿’ 형태를 따른 것이고 한국의 자형은 ‘丿’ 형태를 따른 것이다.

3. 字源⁵⁾

다음은 한자문화권 국가의 한자 표준 자형 중 각국의 자형이 동일하

5) 각국의 한자 자형 비교표와 자원에 대한 해석은 김언종의 「對漢字文化圈常用漢字字形规范化問題的一些題議」(『第八屆 國際漢字研討會 論文集』, 中國教育部 語言文字應用研究所, 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 2007.)와 김언종, 『한자의 뿌리 1·2』(문학동네, 2001.)을 참고하였다.

지 않은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字源 반영 여부에 따라 자형에서 차이를 보인다.

【窓】

中國	臺灣	홍콩	日本	韓國
窗	窗	窗窗	窓	窓

한국과 일본에서는 ‘窓’ 형태로 제시하였고, 중국·대만·홍콩에서는 ‘窗’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중국·대만·홍콩에서는 창문의 무늬를 상형한 ‘窗’을 따른 것이고 한국과 일본의 자형은 ‘窗’의 俗字인 ‘窓’의 형태를 따른 것이다.

【衆】

中國	臺灣	홍콩	日本	韓國
众 / 眾	眾	眾	衆	衆

한국과 일본에서는 ‘衆’과 ‘眾’ 형태로 제시하였고, 중국·대만·홍콩에서는 ‘眾’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중국·대만·홍콩에서는 日과 세 개의 人으로 이루어져 태양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를 상형한 ‘眾’을 따른 것이고 한국과 일본의 자형은 ‘眾’이 와변된 ‘衆’의 형태를 따른 것이다.

【恒】

中國	臺灣	홍콩	日本	韓國
恒	恆	恆	恒(恆)	恒

한국·일본·중국에서는 ‘恒’ 형태로 제시하였고, 대만·홍콩에서는

‘恆’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대만·홍콩에서는 心의 변형인 忄과 하늘과 땅을 나타내는 二, 그 사이의 月 형태인 ‘恆’을 따른 것이고 한국·일본·중국의 자형은 ‘恆’의 俗字인 ‘恒’의 형태를 따른 것이다.

몇 개의 예에 불과하지만, 이상에서 각국의 한자 표준 자형을 비교해 본 결과 한자 구조의 측면, 필획의 측면, 字源 반영의 측면 등에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국에서 제정한 표준 한자 자형 선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다.

Ⅲ. 한자문화권 국가의 한자 표준 자형 선정 기준

한자문화권 각국의 한자 표준 자형은 자국에서 설정한 한자 자형 선정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康熙字典』의 자형을 표준 자형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으며,⁶⁾ 중국은 1949년 이래 簡化字를 표준 자형으로 정하였고,⁷⁾ 대만은 갑골문이 발견

6) 한국의 경우, 2000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에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 확정 기준을 『康熙字典』의 자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1919년 12월 문부성 보통학무국에서 발행한 『漢字整理案』에 『康熙字典』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밝혔다.(교육인적자원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2000. pp.5-9.; 文化廳, 『國語施策沿革資料11 漢字字体資料集(諸案集成1)』, 1996. p.133.)

이하에서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를 ‘『조정 백서』’라고 略稱하겠다.

7) 중국의 『國家通用語言文字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1) 옛 文物이나 古蹟을 표기할 때. 2) 인명 표기에 필요할 때. 3) 書藝나 篆刻 등 예술 활동의 경우. 4) 題詞나 간판의 글씨의 경우. 5) 출판 교학 연구 등에서 필요할 경

된 이래의 문자학 연구 성과를 표준 자형에 반영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漢字字形表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한자문화권 각국의 표준 자형 선정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

중국에서 한자 표준 자형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는 1922년 陸費逵가 제시한 簡化字 사용 방안에서 시작되었다.⁸⁾ 陸費逵는 「整理漢字的意見」에서 간화자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000여자의 통속자(간화된 俗體字) 사용, 감소된 한자 필획 사용(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간체자 사용, 필획이 많은 글자의 경우 字形을 고쳐서 필획을 줄임) 등을 주장하였다.⁹⁾

같은 해 錢玄同은 「減省現行漢字的筆劃案」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간체자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간화자 제작, 복잡한 필획의 한자를 발음이 같은 글자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⁰⁾

이후 간화자 선정에 대한 원칙은 1952년의 「常用漢字簡化表草案(第一次稿)」과 1955년의 「第一批異體字整理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필획이 적은 글자와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글자를 선택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956년에 발표한 「漢字簡化方案」에서는 간화자를 현대 중국의 공식적인 표기 문자로 의결하였고, 古籍이나 그 밖의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화자를 전국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우. 6) 국무원 유관 부문의 비준을 얻은 특수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변체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김연중, 「對漢字文化圈常用漢字字形规范化問題的一些題議」, 『第八屆國際漢字研討會論文集』, 中國教育部語言文字應用研究所, 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 2007.)

8) 陸費逵, 「普通教育應當採用俗體字」, 『教育雜誌』 창간호, 1909.

9) 陸費逵, 「整理漢字的意見」, 『教育雜誌』, 1922.

10) 錢玄同, 「減省漢字筆畫的提議」, 『新青年』, 1920.

1964년의 「簡化字總表」, 1965년의 「印刷通用漢字字形表」, 1966년의 「漢字正字小字彙(初稿)」, 1988년의 「現代漢語常用字表」¹¹⁾와 「現代漢語通用字表」에서 제시한 자형은 당시 중국의 표준 한자 자형의 역할을 하였다.

가장 최근의 표준 한자 자형은 2009년에 발표된 「通用規範漢字表」¹²⁾에서 볼 수 있다. 「通用規範漢字表」는 현재 사용되는 한자의 字形을 통용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3단계로 분류한 후, 각 단계에 따른 한자의 표준 자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간화자 표준 자형 선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1922년에 陸費逵와 錢玄同이 제시하였던 ‘통용성’과 ‘빈도’이다. 즉 1922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간체자’,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간체자’,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글자’, ‘사용 정도가 가장 높은 한자’ 등 중국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한자 자형을 한자의 표준 자형 선정 기준으로 정하였던 것이다.

2. 대만

대만의 경우 한자 표준 자형 선정 기준은 『國字標準字體』에 대한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대만에서는 1963년에 『國民學校常用字表』를 펴내었고, 1973년에 교육부에서 『國民常用字表』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1979년에는 『常用國字標準字體表』를 제정·반포하여 상용한자 4,808자의 표준 자형을 제시하였고, 1982년부터 정식으로 사용되었으며 1998년까지 수정을 거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대만의 한자 표준 자형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¹³⁾

-
- 11) 「現代漢語常用字表」는 1986년 6월부터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에서 연구를 시작하여 1988년 1월에 확정 공포한 것으로, 常用字 2,500자와 次常用字 1,000자를 수록하고 있다.(李行健·費錦昌, 『語言文字規範使用指南』,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1, pp.102-138.)
- 12) 教育部·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組織研制, 『通用規範漢字表(徵求意見稿)』, 2009년 8월 12일.

- 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택함.
- ② 初形(本字)을 택함.
- ③ 여러 이체자가 모두 初形일 때는 最簡字를 택함.
- ④ 뜻이 옛날에는 통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다를 경우에는 모두 택함.
- ⑤ 필획이 비슷하여 혼동되기 쉬운 것은 구별시킴.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한자 표준 자형을 제시하였음은 다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 자형	비교 대상	설명
體	体	繁體를 표준 자형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간화자인 ‘体’가 아닌 ‘體’를 표준 자형으로 함.
維	維	書寫體를 표준 자형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편방을 ‘糸’가 아닌 ‘纟’를 표준 자형으로 함.
眾	衆	初形(=字源)에 근거하기 때문에 ‘衆’이 아닌 ‘眾’을 표준 자형으로 함.
觀	觀	형태가 유사한 부건을 구별하기 때문에 ‘觀’이 아닌 ‘觀’을 표준 자형으로 함.
集	集	부건의 위치에 따라 필획을 구별하기 때문에 ‘集’이 아닌 ‘集’을 표준 자형으로 함.
說	說	필획의 형태를 통일하기 때문에 ‘說’이 아닌 ‘說’을 표준 자형으로 함.

요컨대, 현재 대만의 표준 자형 선정의 기준은 『常用國字標準字體表』

13) 曾榮汾 撰, 『國字標準字體(教師手冊)』, 臺北: 教育部, 1994.

에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택함’이라는 기준에서 볼 수 있는 ‘통용성’, ‘初形(本字)을 택함’의 기준에서 볼 수 있는 ‘字源’, ‘여러 이체자가 모두 初形일 때는 最簡字를 택함’의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구조’ 등이다.

3. 홍콩

홍콩은 1984년에 ‘常用字標準字形研究委員會’를 조직하여 각 글자의 표준 자형을 심사한 후, 1986년에 『常用字字形表』를 출판하였다. 또 홍콩 教育署에서는 1988년에 『小學中國語文科課程綱要(初稿)』를 반포하였으며, 부록에 「小學常用字表」를 넣어 교육용 상용 자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홍콩의 표준 자형은 『常用字字形表』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전이나 교과서 등을 비롯하여 일상 생활에서 표준 자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홍콩의 『常用字字形表』는 대만의 『國字標準字體表』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므로 대만의 한자 표준 자형 선정 기준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만과 홍콩과 같이 번체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의 표준 자형 선정 기준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홍콩의 『常用字字形表』에서 한자 자형을 확정하는 기준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보편성, 학술성, 규율성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四、研訂字形時，主要根據下列原則考慮：

1. 普遍性：形體不一定有文字學上的依據，但在使用繁體字地區，書寫的人較多，符合約定俗成的原則。例如：取「災」不取「灾」；取「啼」不取「噦」。
2. 學術性：形體或許符合初形本義，或許在文字上有依據，通行時間不短，直到目前，仍然有人認識、書寫。例如：以「丟」「任」作標準字，「丢」「任」則列入「備註」欄內，表示可接受為並行的異體字。
3. 規律性：筆畫的形狀或長短，符合規律，認字的人，較易掌握，而又不過分違反大多數的書寫習慣。例如：敬、驚、擎、警、傲、觀、權、舊、護、蔑、夢、寬等字的「艹」部分，都作「艹」。不過由於現時不少人已習慣把「艹」寫作「艹」，因此，敬、驚、擎、警、傲、觀、權、舊、護、蔑、夢、寬等字也是本表所接納的字形，收錄在〈異體字表〉中。

在上述三項原則中，優先考慮的原則如下：

- (甲)完字符合三項原則；
- (乙)符合兩項，其中有「普遍性」；
- (丙)只符合「普遍性」；
- (丁)符合任何兩項，不包括「普遍性」；
- (戊)只符合其中一項，不包括「普遍性」。

14)

이러한 보편성, 학술성, 규율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우선 순위를 정하는 원칙을 또 제시하여 표준 자형 선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 ①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가?
- ② 보편성을 포함한 2가지 기준에 부합하는가?
- ③ 보편성에만 부합하는가?
- ④ 보편성에 부합되지 않지만 2가지 기준에 부합하는가?
- ⑤ 보편성에 부합되지 않지만 1가지 기준에 부합하는가?

위의 조건을 살펴보면 보편성, 학술성, 규율성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14) 港標中文網(<http://input.foruto.com>), 「常用字字形表」標準字體表.

보편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일본

일본의 한자 표준 자형 선정 기준은 1919년 문부성에서 발행한 『漢字整理案』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 『漢字整理案』에서는 2,600여자를 공시하였는데, 여기에서 한자 자형 선정 기준은 『康熙字典』의 자형이었다.¹⁵⁾ 이것은 이후 1923년 상용한자 선정, 1926년 『字體整理集』, 1931년 「常用漢字表」를 거쳐, 1946년과 1949의 「當用漢字表」 및 「當用漢字字體表」에까지 영향을 주었다.¹⁶⁾ 1981년 「常用漢字表」로 개정된 이후¹⁷⁾ 2010년까지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한자 자형 선정 기준은 1948년을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1948년 이전에는 『康熙字典』의 자형을 기준으로 한 반면, 1948년 이후로는

-
- 15) 『漢字整理案』 「범례」에서 “(三) 本案ハ康熙字典ノ字形ヲ本トシテ整理ヲ行ヒタルモノナリ.”라고 하여 『강희자전』의 자형을 저본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강희자전』의 자형을 저본으로 하였음은 1923년의 「字體整理案」과 1938년의 「漢字字體整理案」의 「범례」에서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1942년 발표된 「標準漢字表」에는 『강희자전』의 자형을 저본으로 한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42년 이전까지 일본에서 한자의 표준 자형은 『강희자전』의 자형을 따른 것이었으나 1942년 이후에는 『강희자전』의 자형이 더 이상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 표준 자형의 저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文化廳, 『國語施策沿革資料11漢字字体資料集(諸案集成1)』, 1996. p.133.)
- 16) 藤原宏, 『注解常用漢字表』, 東京: ぎょうせい, 1981, pp.221-235. 참조.
일본의 한자 자형이 『강희자전』의 영향을 받았음은 양창수의 논문에서 ‘石塚晴通가 일본에서 『강희자전』의 자형이 표준자형으로써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 인용에서도 알 수 있다.(石塚晴通, 「漢字字體の日本的標準」, 『國語と國文學』 90호, 至文堂, 1999, pp.88-89.; 양창수, 「日本近代漢字字體의 一考察」, 『일본어학연구』 2, 한국일본어학회, 2000. pp.157-158. 참조.)
- 17) 참고로 1948년 이후 일본의 상용한자(당용한자 포함)에는 이전에 일상생활에서 정자체로 쓰던 한자(주로 『강희자전』 자형)를 약자체로 바꾸어 한자 자형의 간략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佐藤喜代治 編, 『漢字講座』, 明治書院, 1988.)

약자체로 개편되었다.¹⁸⁾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사용 중인 한자의 자형 선정 기준도 획수가 많고 복잡한 부분을 간단화한 기호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 획수를 줄여서 간략화 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 표준 자형의 선정 기준은 1981년 「常用漢字表」로 개정되면서 이전의 ‘當用漢字’ 자형을 전체적으로 간략화하였다. 간략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해서의 초서화 : 圖 → 囟, 晝 → 晝 등
- ② 2가지 이상의 자형이 사용되고 있는 한자를 간단한 자형으로 통일 : ‘島’, ‘嶋’, ‘嶼’ → ‘島’ 등
- ③ 한자에서 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복잡한 구조일 경우에는 같은 음을 가진 간단한 형태로 교체 : ‘圍’ → ‘圉’¹⁹⁾ 등
- ④ 자형 중 복잡한 일부분을 삭제 : ‘應’ → ‘応’ 등²⁰⁾

그러나 이처럼 자형을 간략화하는 것과는 달리 ‘步’ → ‘歩’, ‘涉’ → ‘渉’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획을 증가시킨 경우도 있다.

한편 2010년 개정된 일본의 「상용한자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용한자표」 제작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 18) 일본은 1919년에 문부성 보통학무국에서 『康熙字典』을 기초로 한 『한자정리안』을 발표하였고, 1923년 문부성은 임시국어조사회를 통하여 약자체 154자를 포함한 1,962자를 상용한자로 선정하고, 1931년에는 『상용한자표』(1,858자)를 발표하였다. 이 시기에는 약간의 약자체 외에는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자체인 『康熙字典』 자형을 표준 자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1948년 ‘當用漢字’에서는 2차 대전 이전에 일상생활에서 정자체로 쓰이던 한자도 약자체로 바꾸어 ‘當用漢字字體表’에 명시하였다.
 - 19) ‘韋’와 ‘井’은 모두 일본어 발음이 ‘い’이므로 ‘韋’를 간단한 구조의 ‘井’으로 교체하였다.
 - 20) 1981년 개정된 일본의 「常用漢字表」의 인용은 日本文化廳(<http://www.mext.go.jp>)의 國語施策 중 1981년 內閣告示된 「常用漢字表」 원문이다.

表の見方及び使い方

1 この表は、「本表」と「付表」とから成る。

6 丸括弧に入れて添えたものは、いわゆる康熙字典体である。これは、明治以来行われてきた活字の字体とのつながりを示すために参考として添えたものであるが、著しい差異のないものは省いた。

이상의 내용을 보면, 현재의 「상용한자표」에는 이전 ‘일본에서 明治 이래로 사용되었던 康熙字典體를 덧붙여서 참고’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는 상용한자 자형 선정 기준이 이전의 『康熙字典』 자형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형 선정 기준의 변화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형 중 허용할 수 있는 자형은 다음과 같이 ‘許容字體’라 하여 괄호 안에 제시하였다.

という「字体の許容」を行い、更に当該の字の備考欄には、角括弧を付したものが「許容字体」であることを注記した。「字体の許容」を適用するのは、具体的には「遜(遜)・邇(邇)・謎(謎)・餌(餌)・餅(餅)」の5字(いずれも括弧の中が許容字体)である。

예를 들면 途의 변형인 ‘讵’의 경우, 아래 途의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점이 한 개인 ‘讵’ 형태로 통일하였다.

漢 字	音 訓	例	備 考
途	ト	途上, 帰途, 前途	

21) 이하 2010년 개정된 일본의 「常用漢字表」의 인용은 日本文化廳 (<http://www.bunka.go.jp>)의 國語施策 중 2010년 內閣告示된 「常用漢字表」 원문이다.

22) 國語分科會漢字小委員會, 『「改定常用漢字表」に關する答申案(素案)」, 2010. p.15. 아래에 제시한 ‘許容字體’는 「常用漢字表」내에 있는 ‘本表’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遜, 遡, 謎의 경우, 왼쪽에 위치한 ‘讠’은 점이 두 개인 ‘讠’ 형태가 일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遜, 遡, 謎’를 표준 자형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점이 한 개인 ‘讠’ 형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에 해당하는 한자인 ‘謎’를 예로 든 것이다.

漢 字	音 訓	例	備 考
謎(謎)	나ぞ	謎	[謎] = 許容字体 * [(付) 第2の1 参照]

餌와 餅의 경우에는 왼쪽에 위치한 食의 형태에 대하여 허용하는 자형을 제시한 경우이다. 아래와 같이 「상용한자표」에서는 食이 왼쪽에 위치할 경우 일반적으로 ‘食’의 형태로 통일하였다.

漢 字	音 訓	例	備 考
飾	シヨク かざる	裝飾, 修飾, 服飾 飾る, 飾り	

그러나 餌와 餅의 경우에는 ‘食’ 형태의 餌와 餅을 표준 자형으로 선정하고 ‘食’ 형태의 餌와 餅을 허용하는 자형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은 이에 해당하는 한자인 ‘餅’을 예로 든 것이다.

漢 字	音 訓	例	備 考
餅(餅) (餅)	ヘイ もち	煎餅 餅屋, 尻餅	[餅] = 許容字体 * [(付) 第2の3 【餌】 参照]

또한 「상용한자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준 자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1 へんとつくり等の組合せ方について
 (1) 大小, 高低などに関する例
 硬硬 吸吸 頃頃
 (2) はなれているか, 接触しているかに関する例
 睡睡 異異 挨挨

2 点面の組合せ方について
 (1) 長短に関する例
 雪雪雪 満満 無無 斎斎
 (2) つけるか, はなすかに関する例
 兪兪 備備 奔奔 溺溺
 空空 湿湿 吹吹 冥冥

3 点面の性質について
 (1) 点か, 棒(画)かに関する例
 帰帰 班班 均均 麗麗 蔑蔑
 (2) 傾斜, 方向に関する例
 考考 値値 望望
 (3) 曲げ方, 折り方に関する例
 勢勢 競競 頑頑頑 災災

23)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상용한자표」에서는 한자 부건의 크기 뿐 아니라 점획의 장단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자형의 서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일본의 한자 표준 자형 기준이 본래는 『康熙字典』의 자형

23) 國語分科會漢字小委員會, 『「改定常用漢字表」に關する答申案(素案)」, 2010, pp.17-19.

이었으나 현재는 점차 간략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字體의 허용’이라 하여 한자에서 통용되는 부건 중 정자와 다른 형태는 정자의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한자 사용에 있어서 허용되는 범위를 밝혔고, 구체적인 자형의 표기 원칙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5. 한국

우리나라는 1950년 ‘상용 한자’를 선정한 이후 1957년, 1964년에 수정을 거쳤다. 그리고 1972년에는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선정하였고, 2000년에는 이를 조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²⁴⁾

200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자 자형의 선정 기준은 한자 빈도 조사 결과²⁵⁾와 일본의 ‘당용 한자’나 ‘상용 한자’였다.²⁶⁾ 예를 들면 1950년에 제1회 상용 한자 제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용 한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²⁷⁾

-
- 24) 김영옥,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자형 표준화 연구」,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참조.
- 25) 『서울신문』, 1949년 4월 28일. ‘문교부, 한자사용을 제한하고 국어 술어제정에 융통성을 두기로 결정’ : ‘한글전용법 제정 공포에 이어 상용 한자의 제한론이 대두하고 있음에 비추어 문교부에서는 약 5만 자를 기초로 조사한 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 1천 자 가량을 지정, 제한 사용하게 하리라고 한다.’
- 『조선일보』, 1956년 8월 17일. ‘常用漢字 九月에 綜合檢討’ : 1956년 문교부에서 ‘한자 사용 빈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57년에는 ‘상용 한자 1,300자’로 수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6) 『자유신문』, 1950년 1월 15일. ‘常用漢字一覽(案)’
- 『조선일보』, 1972년 6월 9일 기사를 통하여, 1972년에 선정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781자’는 일본의 ‘당용한자 1,750자’, 예일대의 ‘교육용 한자 1,000자’ 등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7) 『자유신문』, 1950년 1월 15일. ‘常用漢字一覽(案)’

- ① 한자 빈도 조사 결과에 따른 빈도수가 높은 한자.
- ② 일정 빈도수 이상이며 일본의 ‘당용한자’에 포함되는 한자.
- ③ 일정 빈도수 이상이나 일본의 ‘당용한자’에 포함되지 않는 한자 중 많이 사용하는 한자.

한편 2000년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조정에서는 자형 선정 기준을 명확히 밝혔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자료이다.

VI. 배열 원칙

- 한글 맞춤법 자모 순서에 따름.
- 동일 음 내에서는 부수 순서를 따름.
- 본체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강희사전(康熙字典)의 자형을 기본으로 하고, 널리 통용되는 자형도 고려함.

➔ 氏는 雙자 뒤로, ‘변’음 邊은 ‘편’음으로 옮김.

➔ 强, 負, 絶은 본체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형임.

28) 교육인적자원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2000, pp.5-9.
 2000년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를 조정하면서 발표한 자형 선정 기준은 2002년과 2007년의 『교과서 편수자료』, 2007년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12년 전라북도 교육청과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발표한 ‘한문 인정도서 심사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제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 편수자료Ⅱ-1 인문·사회 과학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2, p.56.;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 편수자료Ⅱ-1 인문·사회 과학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7, p.56.;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07, p.41.; 전라북도교육청,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에 따른 인정도서 심사 기준』, 2012.; 강원도교육연구원, 『2012~2013년 강원도교육청 인정대상도서 교과별 인정기준-붙임2-한문』, 2012. p.2.)

『조정 백서』에서는 ‘한자의 자형은 본체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康熙字典』의 자형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 널리 통용되는 자형을 고려한다.)’라고 하여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 선정 기준을 ‘① 본체자로 표기할 것(康熙字典의 자형을 기본으로 함), ② 현재 통용되는 이체자도 고려할 것’이라 제시하였다.²⁹⁾

이상에서 한국을 포함한 한자문화권 각 국의 한자 표준 자형 선정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국과 홍콩의 경우 통용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만의 경우는 통용성과 함께 字源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일본의 경우는 1948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康熙字典』의 자형을 자형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으나 1948년 이후 현재까지 점차 간략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 이전까지는 주로 빈도수가 높은 한자 중 일본의 ‘당용 한자’나 ‘상용 한자’에 부합되는지를 한자 자형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고, 2000년 이후에는 『康熙字典』의 자형을 기본으로 하지만 통용성도 고려하여 한자 자형을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9)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자형 선정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영옥의 논문에서 자세하게 고찰하였다. 김영옥은 2000년에 조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 선정 원칙 중 ‘본체자’ 및 ‘현재 널리 통용되는 자형’의 의미를 각각 正字와 異體字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자형 선정 기준이 ‘『康熙字典』의 正字’를 의미하는 것임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조정 백서』에서 제시한 한자 자형 선정 원칙 중 本體字, 本字, 正字, 異體字 등의 용어가 불분명한 점, 이후 2002년의 『교과서 편수 자료』와 2007년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를 수정한 원칙과 그에 따른 수정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밝혔다.(김영옥,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자형 표준화 연구」, 고려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12, pp.68-72.; 김영옥,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字形 확정 기준 및 字形 수정 양상, 『한문고전연구』 24, 한국한문고전학회, 2012.)

IV. 결론

본론에서는 한자문화권 각국의 한자 표준 자형 선정 기준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1909년 이후 간화자 사용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한 이후, 1922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간체자’,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간체자’,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글자’, ‘사용 정도가 가장 높은 한자’ 등 현재 중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한자 자형을 한자의 표준 자형 선정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처럼 ‘통용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형을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대만은 ‘통용성’, ‘字源’, ‘간단한 구조’ 등을 한자 표준 자형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자원을 표준 자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홍콩은 ‘보편성’, ‘학술성’, ‘규율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중에서도 ‘보편성’이 가장 중요한 자형 선정의 기준이다.

일본의 한자 표준 자형 선정 기준은 본래 『康熙字典』의 자형이었으나 현재는 점차 간략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 또 허용하는 자형을 명시하여 한자 사용에 있어서 허용되는 범위를 밝혔고, 자형 표기의 구체적인 원칙을 세세하게 제시하였다.

한국은 2000년 이전까지는 주로 ‘빈도수’와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 자형’이 자형 선정의 기준이었고, 2000년 이후에는 『康熙字典』의 자형을 기본으로 하고 통용성도 고려하여 한자 자형을 선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자문화권 각국의 한자 자형 비교 및 표준 자형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한자 표준 자형을 선정하고 검토하는 데에 일정 정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參考 文獻>

서울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 강원도교육연구원, 『2012~2013년 강원도교육청 인정대상도서 교과별 인정 기준-붙임2-한문』, 2012.
- 교육인적자원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2000.
- ,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백서』, 2000.
- , 『교과서 편수자료Ⅱ-1 인문·사회 과학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2.
- , 『교과서 편수자료Ⅱ-1 인문·사회 과학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7.
- ,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07.
- 金彦鍾, 『한자의 뿌리 1·2』, 문학동네, 2001.
- , 「對漢字文化圈常用漢字字形规范化問題的一些題議」, 『第八屆 國際漢字研討會 論文集』, 中國 教育部 語言文字應用研究所, 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 2007.
- 김영옥,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자형 표준화 연구」,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字形 확정 기준 및 字形 수정 양상」, 『한문 고전연구』 24, 한국한문고전학회, 2012.
- 문수정, 「한·중·일 삼국의 상용한자 비교연구 : 중복양상과 자형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양원석,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字形과 字序에 대한 管見」, 『동양한문학연구』 28, 동양한문학회, 2009.
- , 「한국의 漢字 字形 規範化 방안 試論」, 『Journal of Korean Culture』 17,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1.
- 양창수, 「日本近代漢字字體의 一考察」, 『일본어학연구』 2, 한국일본어학회, 2000.

전라북도교육청,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에 따른 인정도서 심사 기준』, 2012.

최용혁, 「韓·中·日 生活基礎漢字의 字形 規範化를 위한 研究」, 경상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教育部·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組織研訂, 『通用規範漢字表(徵求意見稿)』, 2009.

陸費逵, 「普通教育應當採用俗體字」, 『教育雜誌』 32호, 1909.

——, 「整理漢字的意見」, 『教育雜誌』, 1922.

文化廳, 『國語施策沿革資料11 漢字字体資料集(諸案集成1)』, 1996.

石塚晴通, 「漢字字体の日本的標準」, 『國語と國文學』 905호, 至文堂, 1999.

語文出版社 編, 『語言文字規範手冊』, 北京: 語文出版社, 2006.

錢玄同, 「減省漢字筆畫的提議」, 『新青年』, 1920.

李行健·費錦昌, 『語言文字規範使用指南』,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1.

佐藤喜代治 編, 『漢字講座』, 明治書院, 1988.

曾榮汾 撰, 『國字標準字體(教師手冊)』, 臺北: 教育部, 1994.

대만 교육부 (<http://www.edu.tw>)

홍콩 港標中文網 (<http://input.foruto.com>)

일본 文化廳 (<http://www.bunka.go.jp>)

Abstract

Consideration of the Selection Basis of Standard Shapes of Chinese Characters in Chinese Characters-Using Area(Korea, China, Taiwan, hongkong, Japan.)

*/ Kim Young Og**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election basis of standard shapes of Chinese Characters of each country in cultural areas of Chinese characters and to grasp the features.

Each country in cultural areas of Chinese characters has concretely proposed the selection basis of its standard shapes of Chinese characters from the early stage of the 21th century. There was a country like China whose selection basis of its standard shapes of Chinese characters was the same as the one used now, and there were countries such as Korea or Japan whose selection basis changed in a certain time.

Reviewing such a selection basis of standard shapes of Chinese characters, it could be confirmed that other nations than Korea based such a selection on common use, sources of characters, simplification, etc. Meanwhile, in Korea, it was found such a selection was based on the frequency, the shapes of Chinese characters used in Japan and characters shapes of 『Kangxizidian(康熙字典)』.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selection basis of standard shapes of Chinese characters carried out in the paper, the selection basis of shapes of Chinese characters at present being used in our country could be confirmed. This result is expected to a reference in reviewing the basis for selecting standard shapes of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educating Chinese writing’ in the future.

* Researcher,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Institute
/ angelok72@hanmail.net

【Key words】 Basic Chinese characters for classical Chinese education, The criteria for selection Standard shape of Chinese characters, Universality, Simplification, shapes of Chinese characters of 『Kangxizidian』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일 : 6월 10일, 게재확정일 : 6월 14일